밀씨들의 이야기

2017년 3월



<가톨릭교리신학원 학생회 편집부 엮음>

밀씨들의 이야기

교리교육학과 2학년

박은주 크리스티나	꿀맛 나는 신학원 1년을 보내며	1
박창소 루도비꼬 볼리외	더 높은 목적을 향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2
박춘성 요셉	세례성사 50주년 금경축	4
변정화 마리아	온유와 겸손	5
서공주 보나	내 영혼의 봄날	7
신진아 카타리나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글	9
이권형 바오로	배교자의 참회록 『ᄌᆞ칙(自責)』	11
이동기 엘리사벳	교리신학원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17
이승덕 돈 보스코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18
이재승 프란치스코	황혼 이혼 증가에 대한 윤리신학적	20
이진형 리나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25

신학심화과정

박태순 마리아	교리신학원의 학우들	26

가톨릭교리신학원 학생회 편집부

서공주 보나(교리교육학과 2학년)

꿀맛 나는 신학원 1년을 보내며

박은주(크리스티나)/교리교육학과 2학년

비몽사몽 휴대폰을 보니 새벽 5시! 방학한 지 어언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오늘도 어김없이 눈이 먼저 떠진다. 아직도 몸은 학기 중(?) 인가보다. 그 즈음,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았다. 본당 신부님과 명도회 회장님께서 권유하신 신학원을 이번엔 꼭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다.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지 않던가? 만류하는 자매님들에겐 “착한 크리스티나!” 되어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입학했다. 단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예수님을 닮고 싶었다.

마의 3월, 강의 내용은 안 들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여기 왜 앉아있는지... 차라리 4, 5월은 축제 준비로 정신없음이 오히려 소통하는 계기였다. 적응할 즈음, 시험과 여름방학과 제주도 공소체험.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2학기가 시작되니 신학원에서의 생활이 은총이었다. 몇몇 학우들에게서 행복하다는 말이 쏟아졌다. 시험과 과제로 정신없는 사이, 또 겨울 방학이다. 감히 타볼산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마음이었을까? 방학이 없어도 좋겠다.

일명 Secret garden을 산책시켜 주신 백운철 신부님, 특히 신앙인으로서 지향할 삶을 알려주시는 김진태 신부님, 빵으로 사랑을 주신 민범식 신부님, 수업 후 짜장면 쏘신 후 창덕궁 소풍 동행해주신 우리 백종연 신부님 등, 어느 과목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다. 미사시간과 수업시간에 주책없이 울컥했던 적은 또 얼마인가! 감사하다. 공동체미사 때 선배님들의 신앙의 귀한 말씀들, 주교님께 신학원에 남겠다 하셨다는 시크하신, 그러나 어린왕자 같으신 우리 최승정 원장 신부님의 말씀도 울림이 크다.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시는가보다.^^

그리고 2학기부터 시작된 우리의 전례준비는 정말 매일이 사건사고의 연속이었다. 그중 개강미사 때 실수한 봉헌바구니는 그중 압권이어서 민망함에 앞서 실소부터 나온다(신부님들, 선배님들 죄송했습니다). 그럼에도 각자 맡은 임무(제대차림, 독서, 미사해설, 꽃꽂이, 복사, 제병제주 등)를 기쁘고 성실히 수행했던 우리 1학년 학우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우리 공동체는 부족해도 서로 도우면서 이루어 나갈 때, 행복이 배가 됨을 새삼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난 1년 매일미사와 함께 한 신학원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이 되고 있다. 신부님들의 사랑에서, 학우들의 좋은 표양(表樣) 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

다시... 새로이 시작될 우리들의 2017년, 행복 가득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다.

더 높은 목적을 향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박창호(루도비꼬 블리외)/교리교육학과 2학년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사도 9,5) 그리고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들은 내가 신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질문들이다. 2006년 세례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알듯 말듯 하느님 존재와 하느님 앞에서 나에 대한 질문은 풀 수 없는 숙제였다. 하느님께 대한 갈망과 지식은 채워지지 않고 내가 빈 그릇 같이 느껴지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일어나 성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 줄 것이다.”**(사도 9,6)

그래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에 숙고 해 보기 위하여 신학원에 입학했고 벌써 1년이 지났다. 참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배웠다. 특히 김진태 신부님의 ‘인간학’ 수업이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누구나 갖게 되는 근본적 인간 존재(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이다. 분명히 나는 보편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정신(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무한한 것을 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처럼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인간 정신(영혼)이 있기 때문에 결핍된 존재가 아님을 안다. 왜냐하면 이 정신(영혼)으로 진리를 찾고, 배우고, 삶으로 실현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 즉 보편적 진리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함께하고자하는 갈망과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관계를 맺는 내면을 가진 주체자로서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된 영혼인가! 영혼을 가진 것은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은 없다. 하느님과 우주 만물을 인간이 자신 안에 담을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다! 인간이 얼마나 깊은 내면을 가졌기에 하느님을 담을 수 있는가? 우리의 끝없는 깊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당신에 대한 갈망은 진정한 행복으로의 초대이며, 당신을 닮으라는 신화(神化)에로의 초대이다. 영혼의 이 자연스러운 이끌림은 창조 때부터 당신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며 사랑은 사랑을 부름으로 이해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존재와 삶이 바로 사랑의 선물임을 깨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하느님 아버지께 다가갈 용기와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다. 참으로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세상창조 이전에 사랑하시는 당신 성자를 통하여 미리 세워 놓으신 하느님의 자비로운 ‘선의’(에페 1.5)이시다. 즉,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로마 8,15)계획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단순한 어떤 것이 아니라 관계 맺는 하나의 인격체임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주체가 되며, 자유로이 자신을 선사하고 친교를 이루고, 은총을 통하여 더 높은 목적을 향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깨닫는다.(가톨릭 교리서 357)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도 자유롭고 주체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어 두어야 함을 깨닫는다. 자신을 내어주는 성숙함 안에서 참 '나'로서 살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꿈꾸어 본다. "오, 아름다운 영혼이여! 그대는 하느님의 모상임을 알라! 그대가 '하느님의 영광'(1코린 11,7)임을 알라! 그대가 그분의 영광이 되는지 들어라. ~ 오, 인간이여! 그대의 위대함을 깨닫고 깨어 있어라." 라는 암브로시오 성인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 하여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느님의 선의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며 이는 하느님의 영광에로의 초대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인간의 위대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줌을 느낀다. 우리는 분명히 하느님의 영광이며, 하느님 현존의 자리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한마음 한 뜻이 되어, 한 백성을 이루고 더 높은 목적을 향하여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야겠다.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카인아 왜 혼자 왔느냐?"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

세례성사 50주년 금경축

박춘성(요셉)/교리교육학과 2학년

교리신학원 과제 중 몇 과목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한 계기가 되었다.
세례 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 생각의 시발점이다.
금년 12월 24일이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0년이고, 내년이면 칠순이 된다.
스스로에게 대견함을 느낀다.
일가친척 한 자리에 모여 잔치라도 벌여야할 것 같은 마음이다.

부모님은 평안남도에서 월남하시어 오 남매를 두셨으며, 종교는 없었다.
나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였는데, 처가는 칠 남매다.
동생들도 출가하였고 손자들도 보았다.
집안에서 세례자는 나 혼자 뿐이었고, 비신자 아내를 맞아들인 것은 일생 최대의 선교의 결실(?)이 되었다.
지금은 일가친척 거의가 하느님의 자녀이며, 조카 중에는 사제도 있다.
이는 우리 집에 내려진 하느님의 축복이다.

축복의 시작은 우연이었다.
한 여름 더위를 피해 친구와 나무 그늘을 찾아 갔다.
그곳에서 검은 보자기를 쓴 여인을 만났다.
그녀의 유혹에 걸려들어 50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여인은 '사람 낚는 수녀님'이었다,

결혼 50주년을 금혼식, 사제서품 50주년은 금경축이라 하여 축하를 한다.
세례 50주년 축하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세례 50주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세례 50주년 금경축'이라고 하고 싶다.
사제와 동격으로 신자들에게 금경축을 쓰는 것이 과연 품격에 맞기는 하는 것일까?
금같이 빛나는 귀한 날들을 보냈다고 하여 금경축이라고 할진데, 하찮은 평신도가 금경축하를 받고 싶다면, 이것은 교만이다.
정말 교만일까?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이러저러한 생각 속에 훌쩍 일 년이 지나갔다.

온유와 겸손

변정화(마리아)/교리교육학과 2학년

나는 고등학생 때쯤부터 부드럽고 자상하고 지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이 좋아보였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천성적이거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품을 갖추는 데는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다. 마흔 살쯤부터 신앙생활 (봉사)을 시작했다. 냉담 중에 아이 세례와 첫영성체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느님 은총을 체험하면서 시작한 봉사활동은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 찼다.

"경기장에서 달리기하는 이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1코린 9,24)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와 닿았다. 오랜 기간 냉담과 무기력했던 나의 삶을 반전 시켰다. 기쁘고 행복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하는 열정이 샘솟았다. 성령 기도회 단체에서 반주봉사를 하게 되었고, 반주를 하기 위해서 레슨을 받았다. 먼 거리에. 무거운 악기, 레슨비, 등...그 어떤 것도 나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여러 가지 다른 봉사도 함께 했다. 그런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생겨 힘든 시간들이 나를 버겁게 만들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성경의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또한 갈등의 뿌리가 말씀 안에서 드러남을 깨달았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19-21) 나는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자매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못 마땅했고, 격분이 일어났다. 나는 많은 피정과 교육을 받아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 한 것 같았다. 성찰도 나름 잘 했다고 생각 했었는데, 봉사를 시작 할 때의 생각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갈등을 겪었다, 나의 결함보다는 상대방의 결함으로 돌리고, 대처할 방법도 찾지 못했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태 16,24) 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관계 안에서의 갈등을 십자가로 여기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의 열매가 나에게 맺어지지 못해서'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의 열매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 뿐 이었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신앙생활 (봉사)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온유와 겸손이 갖추어져야 한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4년간의 봉사 생활 동안에 모든 과정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과정이었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은 앞으로도 꾸준히 닦아야 하는 덕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리 신학원의 생활 또한 무엇보다도 왕복 3시간의 거리를 매일 다닌다는 것과 매일 아침 미사를 봉헌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총을 느끼게 되었고, 훈련과 습관을 통하여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모범이 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마태 11,29).(교회교리서 459항)참조

거룩하신 주님, 온유와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야 함을 믿습니다, 또한 온유와 겸손의 덕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저를 통하여도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길 빕니다. 아멘.

내 영혼의 봄날

서공주(보나)/교리교육학과 2학년

신학원에 들어와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동안 많은 과목을 접하게 되었다. 아직 기초 안에 머물고 있지만 내 영혼은 물을 만난 물고기마냥 싱그럽고 새로운 세계에 빠져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었던 가톨릭교회 지식이 내 안에서 정돈되어 감을 느꼈고 신학공부가 이렇게 깊이 있는 기쁨을 줄 줄을 몰랐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린다.

1981년 12월 24일 성탄 전야 미사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후...본당과 교구 안에서 제공하는 평신도를 위한 교육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럼에도 항상 목마름이 내 안에 자리했다. 교육의 열매는 단편적인(단기교육) 것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각조각 내 안에 쌓여져 한걸음씩 주님께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주님의 가르침, 어머니 성모님의 모범된 삶과 성인들의 가르침과 은총의 기쁨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적지 않게 겪었던 아픔(고통)의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조금씩 성장시켰다. 삶의 모든 것이 은총이었던 나에게 공동체 안에서의 사도직 참여는 본성상 나를 드러내기에(교만) 참으로 좋은 시간들이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 만의 열정을 본당과 교구공동체에 쏟아 부었던 긴 시간들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공허함과 현실의 어려움들이 나를 묶어 버렸다.

영적인 방황은 이어져 갔고 아픔으로 채워져 갔던 어느 날... 주님께서는 2000여년의 장구한 '가톨릭교회'라는 거목을 기도 안에서 보여주셨다. 아주 긴 오랜 세월 모진 비바람에도, 거친 눈보라에도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은 굳센 뿌리가 내린 파릇파릇 싱싱한 고목이며 거목이었다. 내 안의 믿음에 대한 모든 것(앎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작고 참으로 초라했다. 나는 '가톨릭교회'와 '교리'를 모르는 無知자체였다. 나의 믿음 안에는 뿌리가 없음을 직감했다. 차츰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깨우침의 은총 안에서... 나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겸손(謙遜)과 침묵(沈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었다. 왜 겸손해야 하는지, 왜 침묵을 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 안에서 찾아냈다. 모든 물음의 해답은 예수님이셨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나를 비우고 버리는 삶으로, 주님께 의탁의 삶, 단순한 삶으로 이어가고 있다.

참으로 오묘한 섭리 안에서 신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님의 은총으로 내게 열렸다. 바로 이곳 신학원에서...신학을 전공하셨던 많은 교수 신부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주옥같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내 영혼은 신학원에서 기뻐 뛰놀고 있음을 고백한다. 내 인생 안에서 신학원 생활은 내 영혼의 봄날이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단편적인 내 안의 믿음의 조각들이 신학으로 연결되면서 하나씩 둘씩 불이 세차게

켜져 가고 있다. 신학은 나에게 있어서 콘센트 멀티 탭이었다. 이제 신학원 생활과 함께 내 신앙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굳세어지고 더 많이 하느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이 이웃을 사랑 할 것이다. 매일 아침 신학원가는 길... 설레임을 안고 주님께 기도한다. '공부하는 순간순간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공동체 학우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학원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신학원 생활은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와의 만남이었다. 여느 단체와 다름없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학우들의 공동체이다. 우리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장이다. 1년의 과정을 보내면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 할 것인지 고민했다. 개개인 학우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하려 노력했다. 무엇을 나눌 것인지도 고민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학우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기꺼이 배려하고 공유하려 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예수님과 성모님에게서 배운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기다렸다.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 시간이 흐르면서 조용히 자리 매겨짐을 보았다.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침묵은 사랑의 기다림이다. 참된 침묵은 평화와 기쁨이 함께 한다. 성녀 소화데레사처럼 이 공동체에서 '작은 사랑이 되어 보자' 고 마음 안에 새겨 본다.

주님께서는 신학원 공동체 안에서 영광과 찬미 받으시길 빕니다. 아멘.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글

신진아(카타리나)/교리교육학과 2학년

간단한 글이지만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내용이기에 옮겨본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콜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다 보호소에서 함께 지내던 동생마저 죽자 앤은 그 충격으로 미쳤고 실명까지 했습니다. 앤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했고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에 수용 되었습니다.

모두 치료를 포기했을 때, 늙은 간호사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로라는 정신과 치료 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았지만 앤은 담벼락처럼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앤을 위해 가져다주는 그 어떤 음식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로라는 앤 앞에 놓아 둔 초코렛 접시에서 초코렛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고 용기를 얻었고 로라는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 해 주었습니다. 앤은 그 독방 창살을 통해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가끔 정신이 온전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빈도도 많아졌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앤은 정상인 판정을 받아 파킨스 시각 장애학교에 입학했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 후로 로라가 죽는 시련도 겪었으나, 앤은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학교를 최우수학생으로 졸업을 했으며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도 성공했습니다.

수술 후 어느 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을 구함>이라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앤은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못 가르친다고 말렸지만 앤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가 헬렌 켈러이고, 그 선생님이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주었고 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을 정상으로 만들어냈으며, 앤은 헬렌 켈러와 48년을 함께하면서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헬렌이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에는 모든 수업을 함께 받으면서 그녀의 손에 강의 내용을 적어주었습니다.

헬렌은 말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을 불어넣어주신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상처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충과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에 대하여서는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으나 그녀의 스승에 대하여서는 잘 모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3중고를 안고 있는 헬렌 켈러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인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앤 설리반입니다.

헬렌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감각기관뿐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손가락으로 상징적인 터치를 통하여 말하는 법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여 박사가 되고, 영감을 주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앤 설리반은 늘 되풀이해서 헬렌 켈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 마다 무엇인가 성취 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 할 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배교자의 참회록『ᄌᆞ칙(自責)』

이권형(바오로)/교리교육학과 2학년

머리말

한국천주교회의 230여년의 역사 중 100여 년의 역사는 박해로 얼룩진 역사였다. 박해의 역사는 수많은 순교자의 목숨을 앗아간 피의 역사였고 한(恨)의 역사였다. 1784년 교회가 창설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아 이 초대에 기꺼이 응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하여 통치수단으로 삼았던 조선은 서양의 평등과 자유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반상의 체제가 분명한 조선과 같은 계급사회에서는 자유와 평등은 국가의 통치이념과 가치체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동서양의 가치관의 충돌로 정부 당국의 박해는 점차 심해져 갔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며 죽어갔다. 우리는 이를 '순교'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처럼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순교자'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박해시대 모두가 신앙을 고백하고 용감하게 목숨을 바쳐 순교한 것만이 아니었다.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적지 않은 신자들이 신앙을 포기해야만 했다. 우리는 이들을 '배교자'라고 부르고 있다. 가족이 있고 생활인인 그들이었다. 부모가 체포되고 처자식이 잡혀가 뼈가 으서지도록 심한 고문을 당하는데 어찌 순교만 할 수 있을까. 생명을 주신 부모와 생명 그 자체인 처자식을 우선 살려야만 했기에, 천주교의 가르침을 버리고 사학(邪學)이라 말해야 했고 신앙을 포기한다고 말해야 했다.

우리는 역사 안에서 순교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배교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배교자의 말 못할 고뇌와 주님께 다시 다가가기 위해 회심하는 그들을 주목해야 한다. 어쩔 수 없었던 그들, 주님의 백성을 아울러야 한다.

여기 한 배교자가 남긴 회심의 기록이며 참회록인『자책』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서지사항:『자책』은 현재 한국교회사연구소와 호남교화사연구소에 각각 한 부씩 이본을 소장하고 있다. 두 이본은 몇몇 구절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저본을 바탕으로 하여 시차를 두고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여기에서는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본을 참고로 함)

『자책』은 저자가 자기 스스로를 꾸짖는 글이다. 가로 세로 각각 22.4×30.0㎝의 크기로 표지 포함 총 35장으로 되어 있다. 표지에는『턴쥬성교 ᄌᆞ칙』이라는 제목이 있고, 표지 안쪽에는『ᄌᆞ칙 스ᄉᆞ로 ᄭᅮ지ᄌᆞᆷ』라고 기록되어 있다. 본문의 첫줄 중간에 'ᄌᆞ칙 스ᄉᆞ로 ᄭᅮ지ᄌᆞᆷ이라'이라 써있고 다음줄부터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와 저작연대가 쓰여 있지 않다. 그러나 저자를 추정할 수가 있어 원본의 저작 시기도 추정할 수 있다. 저자는 신유박해의 여파로 유배를 떠났으므로 1800년대 초반에 저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저자: 이 책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책의 내용 중 모두에서 "신유년 우리 동국 봉교인의게 샹ᄉᆞᄒᆞ신 그리 흔ᄒᆞᆫ 치명의 대은을 참예치 못ᄒᆞ고 절박 원통아 나 혼자 ᄲᅡ져나셔 이 흥히 옥즁의 잔명이 붓혀 살앗시니 이 무ᄉᆞᆷ 일인고"라고 쓰고 있다. 즉 저자는 흥해(興海, 지금의 포항) 지방의 옥생활 중에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저자는 흥해로 유배를 간 한 천주교인임을 알 수 있다. 『사학징의』에 보면 신유박해 당시 배교하고 흥해로 유배를 간 사람은 박판남과 최해두 두 명으로 나타나 있다. 박판남은 유항검의 비부(婢夫)였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보아 최해두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최해두(崔海斗)는 1784년 교회 창설 직후 영세 입교했던 신앙의 선조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처사촌인 윤유일(尹有一, 1795년 순교, 복자)의 권고를 받아 영세했고, 정약종· 황사영· 최창현 등 당시 교회의 지도적인 인물들과 함께 교회 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이후로 주문모 신부와도 여러 차례 만나 성사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다졌다고 한다. 또한 그는 평소에 『경세금서(經世金書)』와 같은 한문 신심서적을 읽고 있었다. 이 책은 『준주성범』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읽히고 있는 책자이다. 그는 이러한 독서를 통해 신앙의 높은 경지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3. 최해두의 삶: 1801년 신유박해시 교회 지도자들이 유교적인 가치와 가문 수호라는 입장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신앙을 부인할 즈음, 이들과 교류해온 최해두도 그 같은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경기도 여주에 사는 숙부 최창주(崔昌周, 1801년 순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일시 피신하였다. 그러나 그를 잡으려던 관원들은 연좌제에 따라 그 대신 그의 부친 최상은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이 소식을 들은 최해두는 즉시 자수하였다. 효사상이 전부였던 유교적 가치에서 아버지는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모셔야할 대상이었다. 그 후 그는 포도청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가족을 내세워 회유했을 것이고 모진 고문을 가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칠순의 노친과 젊은 처와 어린 아들들을 생각하며 불현듯이 내뱉은 말이 신앙을 버린다고 어정쩡하게 말하였을 것이다. 그러기에 참수를 면하고 멀리 유배를 떠났던 것이다. 그는 그해 5월 10일 유배형의 선고를 받아 경상도 흥해로 귀양을 갔다. 귀양 생활이 시작된 지 5~6년 후 그는 부모의 부음을 듣고서도 장례를 지내러 가지 못했다. 최해두가 얼마나 오랫동안 귀양 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유배지에서 사망한 것만은 틀림없다. 그의 아들 최영수(崔榮受)는 부친의 부음을 듣고 흥해로 가서 장례를 지낸 후 서울로 돌아와 동생 최병문(崔秉文)과 함께 살았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최병문은 체포되었지만 배교하여 석방되었고, 1841년 체포된 최영수는 옥중 생활을 이겨내고 순교하였다.

최해두는 세복(世福)과 천복(天福) 모두를 다 잃게 되었음을 한탄하였다. 비록 현세는 잠깐 지나간다 하였으나 유배되어 옥에 갇혀 있으니 이제 세상의 복을 잃게 되었고, 천주를 거스르고 배반하였으니 죽어서도 영원 무궁세인 천상의 참된 복도 잃을 것이라 한탄하고 있다.

4. 참회록의 내용: 전반부는 배교의 아픔과 차츰 유배생활에 적응하여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에 대한 꾸짖음이다. 주변으로부터 천주학 죄인이라는 지탄을 받으며 어려운 유배생활을 견디어 나가는 한 인간을 모습을 보게 된다. 절대고독의 외지에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돋보인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통회정개(痛悔定改)하여 유배생활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했으며,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 또한 그는 저술에서 삼구칠도, 덕행과 신공, 신망애 삼덕, 회죄경, 조만과경, 칠극, 경세금서 등 풍부한 교리 지식을 동원하여 참회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제시된다. 계명과 함께 자기 자신의 성찰과 앞으로의 지향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십계명을 자신의 신앙의 지표로 삼고 생활지침으로 삼고자 많은 분량을 할애 하고자 했다.

그런데 십계명의 해설은 제6계명까지만 기술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저자가 어떤 사정으로 이 글을 다 완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마지막 장을 보면 한 줄만 기술되어 있어 더 이어서 쓸 수 있는 여백이 있고, 저자들이 필사 완료 후 말미에 쓰는 언제, 어디서, 누가 필사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5. 배교의 시대적 상황: 한국교회사 초기 지식인들은 보유론(補儒論)의 입장에서 '신문화수용운동'의 논리에서 교회 창설을 비롯한 종교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들은 유교적 가치관과 충돌함이 없이 새로운 천주교 신앙을 수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이 취했던 보유론적 자세는 조상 제사와 같은 전례 논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교회 당국에 의해 거부되었다. 또한 정부 당국자들도 천주교의 교리를 사설(邪說)이라며 박해를 가했다. 이 박해 과정에서 신도들을 사회적으로 격리, 매장시켜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며 압박해 나갔다.

이와 같은 박해는 100여 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 박해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순교자와 배교자가 동시에 출현했다. 배교자들 가운데에는 보유론의 부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교적 문화 질서로 다시 복귀하는 지식인 신도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신도 지식인이 가지고 있던 조상 존중과 같은 절충적 자세가 교회와 국가로부터 더 이상 용납되지 않자, 많은 신도들은 신앙을 포기했던 것이다.

한편, 정부 당국의 강박에 의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적지 아니했다. 교회 창설 직후 박해의 과정에서 이승훈·이벽·권일신 등 교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1801년의 박해 과정에서 권철신·정약전·정약용 등이 자신의 신앙을 부

인하고 배교했다. 한편 1866년 이래 병인박해의 과정에서도 서울의 포도청에 체포되었던 신도들 가운데 신앙을 고수한 사람들은 38%였지만 나머지 62%의 신도들은 신앙을 부인하고 포기한 배교자였다. 최해두도 그러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배교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두루 심란하고 답답하여 두어줄 글을 쓰노니, 슬프고 슬프도다. 나는 천주교에 입교하여 근 이십년을 죽기로써 봉행하였노라. 그러나 시절이 불행하여 성교회에 대한 박해가 크게 일어나니, 평소 열심히 봉행하여 믿음을 크게 이룬 이는 우리 천주의 가르침을 본받아, 목숨을 버리는 순교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나처럼 아무런 공도 믿음도 없이 죄로 가득한 사람은 천주께서 내리신 순교치명의 큰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혼자 빠져나와 이곳 경상도 구석진 흥해 옥중에서 욕된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니, 이 어찌 절박하고 원통한 일이 아닌고."

이십년간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였으나 모진 박해로 순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배교한 것을 크게 후회하며 원통해 하고 있다. 늙은 노친과 처자식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 순간을 참지 못한 자신이 밉기만 하다.

6. 저자의 성찰과 통회: 그는 유배지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허망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을 되돌아보며 죄를 알아내어 반성하고 진정한 뉘우침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

보는 이 많지 않아도 일거수일투족 조심하며 조과 만과와 회죄경(悔罪經)을 바치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였다. 천주를 위해 이십년을 봉행하였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친구도 서책도 없는 이곳에서 천주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 두렵기만 하였다.

육신의 때는 물로 씻고, 영혼의 죄는 통회로 씻는 것이므로 죄를 짓고 통회의 눈물이 없으면 어찌 영혼의 죄를 씻었다 하겠는가. 또한 죄를 지어 천주와 성모께 성심을 상하게 하고 정작 자신의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무슨 뉘우침이 되겠는가.

> "통회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천당의 영원한 행복을 잃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면치 못할까 두려워하여, 죄를 범한 것이 서러워 눈물이 흐르고 뼈가 아파하면, 이른바 하등통회니, 이는 자기 신세를 위하여 나는 통회요. 주는 우리 큰 부모요 우리는 주의 자식이라.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테를 두르시고 손과 발에는 쇠못을 박히시고 …자식이 되어 제 부모를 저 지경에 이르게 하고, 이제 또 죄를 지어 부모의 심경을 상하게 하였으니, 자식의 도리 이럴 데가 어디 있으리오. 하여, 죄를 범한 것이 서러워 눈물을 흘리며 뼈가 아파하면 이른바 상등

통회니, 이는 주에 대한 정과 도리를 위하여 나는 통회라, 고로 크고 가장 귀한 통회니라.”

모름지기 신자의 도리라면 주님에 대한 상등통회를 하여야하나 정작 본인은 하등통회를 하지 않나 주님께 망극해 하고 있다. 죄를 이승에서 뉘우치면 사후에는 뉘우침을 면할 것이오, 이승에서 뉘우치지 않으면 내세에는 뉘우침을 그치지 못하리니, 작고 잠깐의 아픔과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앞으로 크고 먼 뉘우침을 기다리겠느냐며 통회함에는 때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월(斧鉞, 도끼)에 죽은 이는 잠시의 치명이라 할 수 있고, 은수(隱修) 고수자(苦修者)의 공부는 곧 일생의 치명이라 더욱 어렵다고 하였다. 내가 처한 이곳 치명터를 만났으니 영복과 영고가 그 감수(甘受) 여부에 달렸다고 한다.

“성전성사에 나타나 있듯이 도끼에 죽는 이는 잠시 치명이거니와, 은수자와 고수자의 공부는 곧 일생의 치명이라 더욱 어렵다하니, 우리의 치명터를 만나 달게 받음의 여부에 달렸으니, 치명이 되게 받으면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영원히 참된 복이 있으려니와, 만일 달게 받지 아니하면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끝이 없으리라.”

그는 자신의 배교를 뉘우치면서 비록 단시간에 목숨을 비치는 ‘잠시치명’은 못하였으나, 대신 더욱 어렵다 하는 ‘일생치명’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충청도 내포(홍주)에서 순교한 원시장 베드로를 떠올린다. 주교님이 원 베드로의 죽음을 듣고 “비록 연장에 죽은 것은 아니나 주님을 증거하다 얼어 죽은 것이므로 위주치사 한 것”이라고 한 말씀을 되새긴다. 저자 역시 흥해의 옥중에 갇혀있어 능히 위주치사 하여 치명 칭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맺음말

가족을 위해 마음에도 없는 배교를 하고 일생동안 스스로를 꾸짖으며 한없는 후회와 반성을 하며 이글을 써 내려갔을 저자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 누가 노부모와 처자식을 버리고 육체적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잠시 신앙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을까.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는 잠시 주님을 배반한 죄과를 뼈저리게 고백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다잡기 위해서는 오롯이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 이것만이 천주께 죄를 씻어내는 길이었다. 그는 “음식과 의복은 육신을 기르는 재료요, 덕행과 선공은 영혼을 기르는 양식이니, 하루 두세 번 음식을 먹지 못하면 육신이 굶주릴 것이요,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빠뜨리면 영혼이 때를 놓칠 것이다.”라고 하였듯이 항상 기도하며 생활하였다. 그러기에 십계명을 깊이 성찰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 ‘흥해’라는 감옥에서 봉쇄 수도원의 수도자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긴

여정을 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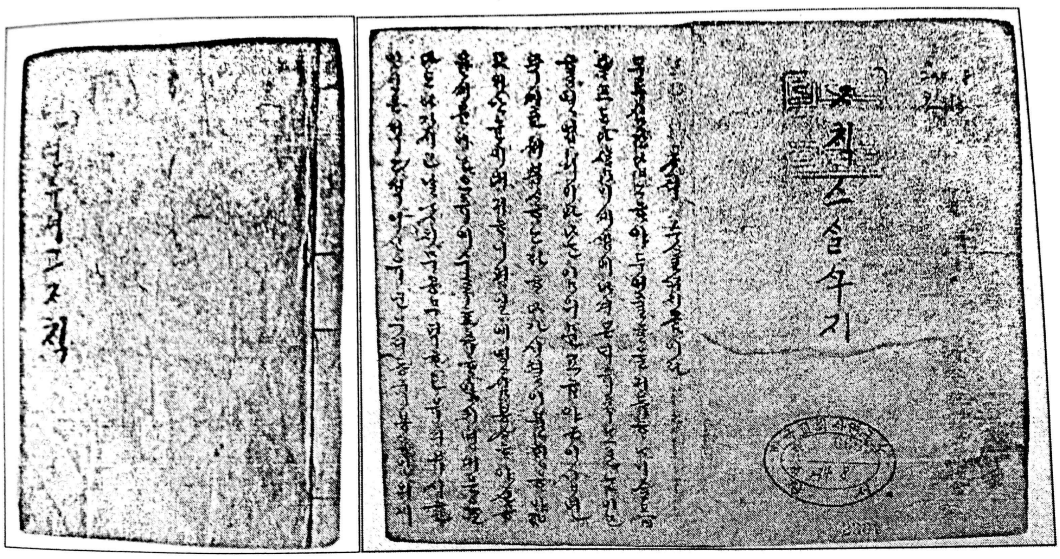
『자책』은 한글로 써진 한 배교자의 고백록이요 참회록이다. 비록 피를 흘리는 잠시 순교는 못하였지만 일생을 참회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일생 순교라는 길을 선택한 참 신앙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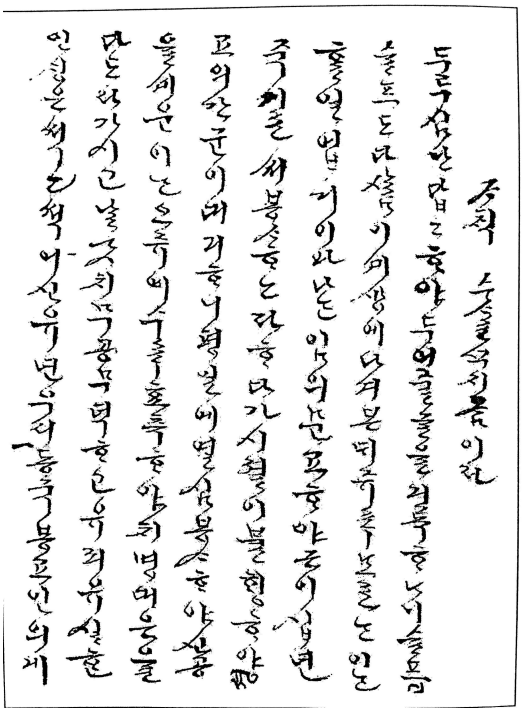
■ 인용자료

· 박형무 풂, 『천주성교 자책』, 군자출판사, 2013.

· 김영수 역, 『자책』, 흐름출판사, 2016.

· 조광, 「유배지에서 쓴 참회의 기록」, 『경향잡지』(8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





교리신학원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동기(엘리사벳)/교리교육학과 2학년

하느님의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아 교리신학원에 입학하여 신학을 배우며 나의 30여 년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는 과연 하느님께서 나를 교회로 초대해주신 선물을 제대로 나누었는지 의문이 든다. 또 얼마나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늘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사랑을 나눈 건 아닌지 하는 반성이 든다. 봉사를 하면서 나의 지성과 의지를 하느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하는데, 나는 나의 생각을 앞세우며 일했다. 주어진 일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상대방이 내 기준에 못 미칠 때는 때론 상처도 주고 답답한 마음에 화도 내곤 했었다. 하느님께 성령의 내적인 도움을 먼저 청하지도 않고 말이다.

이제 신학원에서 하느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배우고 있는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내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또 신앙은 이해를 요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하시기에 나도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사랑을 저울질 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느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노력한다. 교수 신부님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통해 졸업 후 부족하지만 교리교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님의 복음화 사업에 동참해야겠다는 다짐도 새로이 해본다. 다시금 봉사의 기회가 주어질 때는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은총을 청하며 봉사에 임해야겠다는 다짐도 한다. 늦은 나이에 교리신학원 생활이 체력이 딸려 힘도 들지만 하느님의 말씀의 달콤함에 피로함도 잊고 주님의 부르심에 '네 여기 있습니다!' 하며 기꺼이 응답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사는 내가 거룩하게 변모하는 신비이며 나의 세속의 삶을 봉헌하여 예수 그리스도화 되게 해준다. 그리하여 나는 거룩한 성찬례 때 하느님과 일치하기위해 거룩한 상태가 되려고 노력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나의 피, 눈물, 삶과 수고를 제물로 바쳐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 달라고 기도한다. 성령의 부르심에 나의 소명을 깨닫고 기쁘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강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상승시키는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다. 나를 거룩하게 이끄는 이곳의 삶에 감사드리며, 교리신학원 신부님들과 학우들 간의 함께한 시간들이 이곳을 떠나더라도 내내 그리워질 것 같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이승덕(돈보스코)/교리교육학과 2학년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마르 8,29)라는 질문을 받는 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 인가? 즉 나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게 되고, 나의 신앙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모태신앙으로 출발해온 나는 왜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무엇이라 고백하고 싶은 가? 하느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주님이신가? 초대 교회의 신앙고백은 처음부터 예수를 주님이라는 신성한 칭호로 부름으로써, 권능과 영예와 영광을 하느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확언한다. (가톨릭교회교리서 449장)

나는 예수에 대해 알기 위해 교리 신학원에까지 왔지만 아직 ‘예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이다’ 라고 고백할 만한 체험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어린 시절, 역시 모태신앙인이신 어머니로부터 “죄 지으면 지옥 가서, 시뻘건 불 속과 끓는 유황에 빠져 영원히 고통 받는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인지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 꿈속에서 악몽을 꾸던 내게 있어 하느님/예수는 나를 죄의 고통(지옥)에서 구원해줄 구원자였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교리신학원에 다니는 지금, 나는 어린 시절과 같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마르 12,30-31)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깊은 묵상을 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며, 그 축복에 대한 나의 의무는 하느님께서 구현하시고자 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 주겠다.” (창세 16,10)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네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 26,4)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아담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만큼 불어나게 해 주겠다고 축복해 주셨다. 여기서 하느님의 축복은 인간의 번성이다. 하느님의 축복인 인간의 번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 한다. 즉 내가 이웃을 사

랑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내가 하느님이 인류에게 준 번성의 축복실현 활동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축복인 인류의 번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웃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하시고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셨다.

지금의 나는 예수를 어떻게 호칭하고 싶은가? 하느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느님? 인간으로서 죽었다 살아나신 분? 모두 아니다. 나는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으로 부르고 싶다. 그는 하느님 나라 선포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으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시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셨다. 나의 신앙이 더 깊어지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주님이심을 가슴으로까지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신앙 체험이 부족해서인지, 그저 내가 본 받고 따라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 부르고 싶다. 나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예수는,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목숨을 다하여 실천하신 예수’, ‘하느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예수’,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위대한 스승 예수’이다.

황혼 이혼 증가에 대한 윤리신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이재승(프란치스코)/교리교육학과 2학년

Ⅰ.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멀쩡하게 잘 살던 것처럼 보이던 부부가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나서 늦은 나이에 이혼을 하는 이른바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 만나 자식 낳고 어렵고 힘든 시절 다 겪고 애들 결혼시키고 이제는 부부끼리 오순도순 남은 생을 잘 살 줄 알았는데 이혼이라니... 이전에 결혼식장에 가면 단골로 듣는 주례사 내용인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는 이제는 옛말로 되어가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황혼 이혼 증가의 원인 및 관련 통계자료를 알아보고 윤리신학적 관점에서의 혼인과 이혼에 대한 의미를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황혼 이혼 실태와 원인

1. 황혼 이혼의 정의

황혼 이혼은 좁은 의미로 60~70대 이후의 이혼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자녀들이 출가했거나 대학생이 돼 독립할 수 있게 된 후의 이혼을 포함한다. 대체로 결혼생활을 20년 넘게 해온 50대 이상의 부부가 혼인관계를 끊는 것을 말한다. 황혼 이혼은 아내 쪽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자료

▶ 우리나라 통계청의 '201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결혼을 지속하다 이혼하는 '황혼 이혼'은 20여년 사이 14배 증가했다.

▶ 황혼 이혼은 1990년 2,363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33,140건으로 급증했다.

▶ 2012년부터는 황혼 이혼이 결혼 4년 안에 갈라서는 신혼 이혼을 추월했고, 꾸준히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 출처 : 2016. 3. 27 연합뉴스 ;
(기사 제목 :「60대 이상 '황혼이혼' 20년새 14배 늘었다」)

3. 황혼 이혼의 (증가)이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측에 따르면 황혼 이혼은 ‘노후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의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가정불화가 있어도 '참고 살자'는 생각이 강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퍼져 노인이 돼서도 이혼을 결심한다는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혼이 증가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이 사라진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혼사 등을 치른 노년층은 이제는 부모로서 의무가 없어져 이혼 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자녀 양육 때문에 결혼을 겨우 유지해 오던 부부들이 뒤늦게 의무감에서 해방되면 이혼을 선택한다는 것이 상담소 측의 설명이다.

4. 문제점

황혼 이혼의 대부분은 대화의 단절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파경에 이르고 만다. 노년기 결혼 파탄은 노인의 정서적 외로움과 우울증을 유발하고, 독거노인이 늘어나 노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황혼 이혼은 이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의 붕괴, 사회와 국가의 문제이다.

Ⅲ. 성경과 혼인· 이혼 (윤리신학적 관점에서의 접근)

1. 창조 질서와 혼인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녀 사이의 사랑이 당신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의 표상이 되게 하신다(창세 1,31). 즉, 부부의 혼인은 창조 계획에 따른 것이므로 신성한 것이다. “창조주께서 제정하시고 당신의 법칙으로 안배하신, 생명과 사랑의 내밀한 부부 공동체는 인격적인 합의로 맺은 결코 철회할 수 없는 계약으로 세워진다. …… 하느님께서 바로 여러 가지 선과 목적을 지닌 혼인의제정자이시다. (사목 헌장, 48장) “개인의 행복, 일반 사회와 그리스도교 사회의 안녕은 부부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행복한 상태에 직결되어 있다.”(사목 헌장, 47항)

2. 부부애의 선익과 요구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남녀가 만나 함께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부애는 전체성 곧 인격 전체의 모든 부분 - 육체와 본능의 요구, 감정과 애정의 힘, 정신과 의지의 소망 - 을 포함한다. 부부애는 육체의 일치를 넘어, 한 마음 한 영혼을 이루는 깊은 인격적 일치를 도모하는 것이며, 저 결정적인 상호 증여의 불가 해소성과 신의를 요구한다.”(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가정 공동체」, 13항: AAS 74(1982), 94면 참조)

3.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부부의 사랑은 그 본질상 삶 전체를 포괄하는 인격적 공동체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 6). “서로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인정되는 아내와 남편의 평등한 인격적 존엄으로, 주님께서 확고히 세우신 혼인의 단일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사목 헌장, 49항)

4. 혼인성사

혼인성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상징한다. 이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은총을 부부에게 준다. 이 성사의 은총은 부부의 인간적 사랑을 완성하고, 해소할 수 없는 그들의 결합을 굳건하게 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그들을 성화한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 24회기, 혼인성사 교리: DS 1799 참조)

5. 현대 세계의 혼인과 가정

개인의 행복, 일반 사회와 그리스도교 사회의 안녕은 부부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행복한 상태에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존엄성이 어디에서나 똑같은 밝기로 드러나지는 못하고 있다. 중혼, 이혼의 만연, 이른바 자유연애 또는 다른 기형으로 그늘이 졌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부부 사랑은 흔히 이기주의, 향락주의, 부당한 출산 거부로 더럽혀지고 있다. (사목 헌장, 47항)

6. 이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은 불가해소성을 가지므로 세례 받은 이들 사이에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이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교회법 제 1141조) 이혼은 자연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혼은 부부가 죽을 때까지 서로 함께 살기로 자유로이 합의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이혼은 성사로 맺어진 혼인이 표징으로서 보여 주는 구원의 계약을 거스르는 것이다.

Ⅳ. 황혼 이혼 문제의 근원적 고찰

황혼 이혼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대수명이 늘기도 했지만, 가치관이나 여권신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남자들의 권위적이며 가부장적인 사고가 큰 원인이다. 결국 자녀들이 다 크기 전까지는 성격과 취미 등의 차이와 대화에 신경 쓰지 못하다가 자녀들이 성장하고 부부만의 시간이 주어지면서 간극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혼의 사유가 배우자 부정이나 다른 문제가 아닌 '노후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실한 인생 황혼기의 혼신을 다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황혼 이혼은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로부터 인격적이고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피해의식,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에 전념하다보니 정작 자신의 인생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버렸다는 허무의식, 그리고 남은 생이라도 간섭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자아의식의 집합체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고 격려하여 상대가 자존감을 느낄 수 있었다면 황혼 이혼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그리스도의 윤리에 따른 삶을 살았더라면, 성가정을 이루며 살았더라면 황혼 이혼 문제는 발생치 않았으리라.

Ⅴ. 그리스도인의 부부 윤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에 대해 선택하거나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 즉, 윤리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근본 기준이 있는데 첫째 근본 기준은 “성경의 인간관과 일치하는가?”이며, 둘째 근본 기준은 “예수님의 모범과 일치하는가?”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부 윤리에 따라 부부 각자는 “서로 처음에 한 약속을 계속해서 갱신할 의무가 있다. 둘 모두는 상대방의 심리, 규칙적인 변화, 취향, 영적성장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호존중을 기르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복종을 실천해야 한다(에페 5, 21-22. 28. 33). 부부는 갈등이나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부부는 출산, 사회공헌, 영적발전 등에 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발행, 2010년, 성경과 도덕 145쪽 참조) 결국 그리스도인의 부부 윤리에 따른 삶은 성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성가정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두는 삶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Ⅵ. 교회의 역할

갈수록 늘어가는 황혼 이혼을 인위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금할 수는 없지 않은가? 황혼 이혼이라는 병적인 사회 현상을 줄이고 우리 사회를 하느님 뜻에 맞는 올바른 사회로 만드는 역할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방금 위에서 언급한대로 ‘성가정 이루기 운동’이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교회 차원의 각종 교육을 통해 항상 그리스도인의 부부 윤리를 실천하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교육으로는 매리지 엔카운터(Marriage Encounter, M.E.) 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운동은 부부 간의 대화문화를 정착시켜 교회와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며 부부들을 풍요로운 결혼생활로 이끌고자하는 운동이다. M.E.는 부부와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드물었던 1970년대 후반 한국 교회에 들어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부부를 중심으로 한 사랑의 가정 공동체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선교에 기여해왔다. 이밖에도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부부들에게 항상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꾸준히 자아의 가치를 높이도록 해 주어서 항상 삶의 의미를 지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Ⅶ. 나가는 말

삶에 있어서 황혼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다. 힘들던 자식 뒷바라지 다 끝내고 부부만의 시간을 오붓하게 가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둘이서 손잡고 여행을 떠날 수 있다. 30년 이상을 함께 먹고 자고 고민해 왔으니 부부는 성격이니, 취향이니, 식습관이니, 하다못해 걸음걸이도 닮아 버렸다. 이제 남은 소망은

하나 - 그것은 남은 생을 함께 잘 살다가 하느님 나라에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도 아쉬울 판에 황혼 이혼이라니..... 이것은 정말 아니다. 갈수록 어지러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모습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 6)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이진형(리나)/교리교육학과 2학년

부푼 꿈을 안고 신학원에 문을 두드린 게 그야말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 지나갔다. 마치 조그마한 소용돌이가 지나간 것처럼 바쁘게 돌아갔던 한해였다. 그동안 어떨 땐 한없이 긴장을 해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를 괴롭힐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땐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태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자니 지난 1년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사기에서 필름이 돌아가듯 내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간다.

기뻤던 순간, 속상했던 순간,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했던 순간, 실수했던 순간 등....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 과거라는 상자 안에 고이 보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나한테 큰 경험이 쌓였다는 게 뿌듯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이 모든 걸 과거형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게 슬프기도 하다. 하나하나 곱씹다보니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이 내가 제출했던 리포트들이다. 마감일에 쫓겨 날짜만 맞춰 제출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허접한 리포트에 점수를 주시려고 교수 신부님들은 얼마나 긴 시간동안 묵상을 하셨을까 생각하면 죄송하기까지 하다.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건 나에게 1년이 더 남아있다는 것이다. 나 자신을 채찍질 할 수 있는 시간 말이다. 얼마나 나 자신에게 만족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졸업을 할 때 성장해 있을지 미지수이지만 말이다. 적어도 학과 시간 중엔 최선을 다해 노력할 준비는 되어 있다. 한 가지 걱정은 1학년에선 접해보지 못했던 과목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니 다행이긴 하지만 말이다. 나도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긴장을 풀 시간을 자신에게 줄지도 모르겠다. 언젠가 부원장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학원에서의 모든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1년 후 이맘때 쯤 미소 짓고 있을 나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하느님이 날 큰 도구로 쓰시려고 이리로 부르셨겠지”라는 당돌한 생각을 해 본다. .

교리신학원의 학우들

박태순(마리아)/성서영성학과 졸업생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한다.

아 ~
참 좋다!

아버지 하느님이 주신
참으로 좋은
영적인 형제자매들이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들이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야기로만
끝도 없이 이야기꽃을
웃음꽃을 피우는 우리

아버지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우리들이다.

아버지를 참으로 알아가고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다.